



(32) 정시채 前 농림부장관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군산

“5·18 원인은 軍 과잉진압” 보고 직후 보안대行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한 후 505보안부대에 끌려가 6일 동안 구금됐습니다. 2~3평쯤 되는 지하실 공간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학생 측 편을 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조사의 요지는 ‘왜 전남도청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지요. 직무유기로 몰아세울 작정이었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보안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던 정시채 전 농림부장관의 증언이다.

1980년 5월21일 오후 전남도청에 있던 군인이 모두 철수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당시 전남도 부지사로서 있던 정 전 장관은 직원 3명을 데리고 전남도청으로 들어갔다.

“모든 국가기관이 사라진 현장에서 저 혼자만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와 학생대표 등으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습위는 6일 동안 활동하며 무기 회수에 들어갔다. 당시 5천정이나 풀렸던 총기 중 3천500여정이 회수됐다. 수습위 활동의 중심은 부지사실에서 이뤄졌다. 모든 시외전화기 끊어진 당시 도청에서 유일하게 시외전화 가능한 사무실이기도 했다.

“당시 부지사실 전화번호는 22-7234였습니다. 아직도 전화번호가 기억이 날 정도로 당시 부지사실에서의 수습위 활동은 저의 삶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도 부지사실을 이용해 본사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서청원 전 의원도 당시 중앙일보 평기자로써 취재를 한 후 부지사실을 이용했습니다”

‘부지사가 학생들과 부화뇌동했다’

당시 보안대서 6일간 조사받아

그리고 계엄군이 다시 전남도청을 점령한 3일 후 군·경·검 등으로 구성된 중앙의 합동조사반 50명이 전남도청을 찾았다. 정 전 장관은 당시 부지사로서 그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저는 광주항쟁의 원인이 ‘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조사반원이 ‘당신 눈으로 봤느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 눈으로 확실히 봤다’도 답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부지사가 학생들과 부화뇌동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정 전 장관은 보안대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광주노인회 등 시민들이 나서서 ‘석방’을 탄원하는 연관장을 돌리자 6일 만에 풀려났다.

진도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군내국교와 진도중학교를 졸업한 뒤 목포고(3회)로 유학을 갔다. 최영철 전 국회의장의 장과 전석훈 전 전남지사 등이 그의 동창들이다.

6·25 전쟁에서 학도의용군으로 활약, 군 복무를 마친 정 전 장관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이듬해인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일반행정과에 합격, 공직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경찰을 택했다.

“당시 고시에 합격하면 바로 총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



약력

- ▲1933년 진도군 군내면 출생
- ▲목포고, 전남대 법대졸업
- ▲광주경찰서장·무안군수·광주시장·전남 부지사
- ▲11대, 12대, 14대 국회의원
- ▲농림부 장관
- ▲초당대 총장

급제제도 복잡하지 않은 등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 처안국에 공직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북경찰국 수사과장, 전남경찰국 수사과장을 거쳐 1967년에 광주경찰서장에 임명됐다. 당시 광주에는 경찰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광주경찰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경찰서였다. 그런데 정 전 장관은 경찰 생활 8년 만인 1969년에 무안군수로 전직하면서 일반행정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다음해 광주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1972년 국방대학원 연수를 받을 때까지 3년여를 무안과 광주에서 지냈다. 무안군수 시절, 정 전 장관은 ‘농로 천리 뚫기 운동’을 펼쳤다.

“당시 농민들 대부분은 지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시채 전 장관이 광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70년 광주 사직동물원 개원식에서 광주지역 유지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당시 박인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 시장, 지창선 광주노인회장, 김재식 전남지사, 신학진 31사단장 등.

래서 농촌근대화를 위해서는 지계를 없애고 리어카를 이용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리어카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에게 농로 뚫기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1년 만에 380km, 약 천리의 농로를 개척했습니다. 모든 군민이 나서서 농로부지를 내놓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계가 없어진 고을이 됐지요. 아마도 이 운동이 1971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그는 또 광주시장 시절에는 동북호의 물길을 연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했다.

81년 내무부 장관 연락받고 상경

‘전국구 의원 하라’ 강제로 정계입문

“1967~1968년 한반도를 휩쓴 대가뭄으로 전국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광주시도 마찬가지여서 5일에 한번 급수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동북수원지 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물길을 내서 광주시민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광주시민이 53만명이었는데, 100만명이 이용해도 걱정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후 1975년 내무부 소방국장, 1978년 내무부 감사관을 거치는 등 내무부에서 관료생활을 하던 정 전 장관은 1980년 1월21일 전남도 부지사로서 부임하면서 일생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겪는다. 보안대에 끌려가는 고초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후 거의 반강제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것이다.

“1981년 3월 내무장관으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올라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올라갔는데 전국구 의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정계에 나가냐’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내무장관이 ‘위의 지사 사함을 통보한 것’이라며 말했어요. 강제적으로 맡긴 것이지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돌아왔죠”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직기자 jrwi@kwangju.co.kr

마한·백제 때부터 외항 역할 조선시대 對中 무역·외교 길목

전라도 북서단 군산시 월명공원 점방산(135m) 봉수에 올랐다. 금강과 서해가 조망되니 마한과 백제 때부터 수문장이자 외항 역할을 맡았던 곳을 짐작케 한다.

백제 때 마서량(馬西良), 신라 때 옥구(沃溝), 러말선초에 진포(鎭浦)와 군산(群山)으로 변했다. 시청 서편은 예전에 남북으로 갯길이 나서 섬이었다. 옥야구(沃野多溝)의 둔덕이다.

본디 군산 터는 선유도에 있었다. 조선조 세종 때에 진영을 옮길 때 지명까지 따라와 옛터는 고(古)군산이 됐다. 천해 절경인 선유도는 중국과 외교·무역의 길목이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였다.

1323년 왜구가 군산(선유)도에서 개성으로 향하던 조운선(漕運船)을 약탈했으며, 1358년에는 조창 진상창까지 침입했다. 1380(우왕 6년)년 최무선은 화약무기를 동원 왜선 500여척을 소탕했다. 고려 4대첩으로 꼽는 진포해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군산진이 옥구현 북쪽 진포(鎭浦)에 있다. 수군만호 아래 중선 4척, 별선 4척, 군사 461명, 뱃사공 4명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현재 영화동 여성화관 근처로 수덕산이 배산이 되어 해풍을 가린 곳이다.



간조 때 군산항과 뜬다리.

1512(중종 7년)년 용안 특성장이 군산포로 옮기고, 범성포 관할 흥덕, 고부, 정읍, 부안의 세곡도 맡게 된다. 1710년 참절제사(중 3품)진으로 승격되어 군사와 조운을 관장했다. 속대전에 따르면 조운선 18척, 조군 816명 배치됐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군산이 위치한 북면은 740호 2천456명이다.

1872년경 군산진지도에 보면 동쪽 진터(아사, 아문, 책당, 궁기고, 이청, 조복청, 장청)와 서쪽 조운창지로 나뉘어져 있다. 율터(射亭)와 포광정과 함께 관옥선도 그려져 있다.

1899년 개항과 더불어 군산의 경관은 크게 변했다. 육·해상교통의 변화(全群도로 개설, 호남-군산선 철도개통, 항만확장)와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일제의 ‘수탈기’로 성장하게 된 군산의 모습은 체만식(1902~1950)이 쓴 ‘탁류(濁流)’에 체보선창, 미두장으로 나타난다.

군산항은 1905년부터 축항공사가 이뤄졌고, 1912년 군산역까지 철도가 연결됐다. 1930년대 뜬다리(浮棧橋) 4기를 설치하여 3천 톤급 기선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었고, 장항제련소도 준공된다.

나은동 쌀밭방죽(米堤池)은 조선시대에 쌓았고, 1908년 탁지부가 인가한 수리조합설치의 시초가 됐다. 옥구지는 1923년 준공한 것으로 대야제 물을 끌어와 담았다. 금강하구둑은 1989년 축조됐고, 1995년 담수호로 변했다. 서해안고속국도 금강대교가 2001년 놓였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 베콤씨

유민약행
2007 한국농림수산식품부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울구 3위 (제약부문) 1위

베콤씨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수분생태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유민약행 소비자 상담실 080-004-1188(수업시간) • 부산(051)452-4973 • 대구(052)752-06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0 • 문의 및 구매, 인공로 생체활성화 130-360-1558 www.beomssi.com